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8.15~18)

1.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(8.12) 및 국장급 협의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(경제산업성)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은 15일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화이트국가 배제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함.¹⁾
- o 한국 정부의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세코 장관은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을 놓고 보았을 때 (일본에 미치는)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답변함.
- o 한편 세코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불매운동 및 일본 관광 감소 등 기타 분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“수출관리제도의 운용상의 문제를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.” 고 답변하였으며, 한국 정부와의 (국장급) 협의를 할 의향이 없다고 밝힘.
- * 관광 산업에 대한 영향과 관련, 일례로 홋카이도의 경우 인바운드 소비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음.²⁾ 그런데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로 한국인의 단체 관광 예약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함.³⁾
- (외무성) 고노 외무성 장관은 15일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자국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함.⁴⁾
- 또한 한일 대립의 원인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하여금 신속하게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.

1) 経済産業省(2019), 웹사이트: <https://www.meti.go.jp/speeches/kaiken/2019/20190815001.html> (검색일: 2019. 8. 16)

2) 2018년 4~12월 홋카이도를 방문한 관광객 202만명 중 한국인은 50만 5,200명으로 전체의 약 25%를 차지하고 있음. 「韓国客、キャンセル相次ぐ、道内観光に暗雲、政治問題が影響、航空、運休や減便」 『日本経済新聞』(2019. 8. 17).

3) 각주 2와 출처 동일.

4) 外務省(2019), 웹사이트: https://www.mofa.go.jp/mofaj/press/kaiken/kaiken1_000065.html#topic2 (검색일: 2019. 8. 17)

2. 한국 정부의 폐배터리·폐타이어·폐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 관련

□ [정부 동향]

- 환경부는 8월 8일 수입 석탄재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, 폐배터리, 폐타이어,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강화 방침(방사능·중금속 검사 강화)을 발표함.⁵⁾
- o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점검하는 횟수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,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할 방침

□ [일본 언론 평가]

- 일본 언론들은 이번 환경부의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조치를 두고 “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대항조치의 일환”으로 평가함.⁶⁾
- o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의 폐플라스틱 전체 수입량 중 약 40%를 차지하는 일본에 대한 표적이라고 논평함.⁷⁾

3. 한일 관계 악화 및 전망 관련

□ [일본 언론 전망]

- 일본의 일부 언론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,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매각 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본이 한국의 TPP 참여 거부 등 대항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함.⁸⁾

5) 환경부, 「환경부,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」(2019. 8. 16).

6) 「韓国、日本からの廃プラ検査強化。」『日本経済新聞』(2019. 8. 16) 및 「韓国：日本の廃プラを検査強化 原発問題絡め、けん制か」『毎日新聞』(2019. 8. 17). 및 「廃プラなど輸入検査強化 韓国、日本への対抗措置か 計4品目に」『朝日新聞』(2019. 8. 17).

7) 「韓国、廃プラも検査強化 輸入量 4割占める日本標的」『産経新聞』(2019. 8. 17).

8) 「日韓 「政令経令」の危機、歴史問題、貿易投資に影」『日本経済新聞』(2019. 8. 16).